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다만 할 뿐 - 정윤미
- 05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는 고리뿔 - 이재곤
- 11 싸바이다, 라오스
학교 가는 길 - 배해정



국내소식

- 16 함께하는 사람들
거제도애광원 봉사를 다녀와서 - 이성우
또 하나의 즐거움 - 최진연
낙숫물로 바위도 뚫을 남자 - 권영숙



활동터소식

- 22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26 후원인의 소리
- 2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패널날 2014. 11. 3 **패널이 범람**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패널터** JTS
도움이 현희연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현지 김재협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보건위생 교육영상을 보는 학생들



다만 할 뿐 -유치원의 보건위생 영상 교육

매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치원 앞마당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아이들이지만, 정작 자기 손은 깨끗이 씻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덧나 나올 때까지 한동안 고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윤미 활동가

요즘에는 매일 아침 마을 유치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러 다니고 있다. 며칠 전에도 유치원 점검을 나서려는데, 병원 담당자가 이왕 다니는 길에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동영상 보여주면 어떨겠냐고 제안을 했다. 마침 지바카 병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계획하느라 미리 준비해둔 영상자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앞에 나서서 손 씻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주거나 영상물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유치원을 방문하는 길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동의했다.

그 날부터 손 씻기와 쓰레기 버리기, 깨끗한 물 마시기 같은 위생에 관한 영상자료를 준비하고 마을 유치원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보건위생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라홀나가르 마을의 유치원이었다. 유치원 교실에는 30여명의 아이들이 앉아있었다.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해서 위생교육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화면에 집중했다.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앞에 나서서 손 씻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주거나 영상물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조막만한 손을 비비적거리며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보건위생 교육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번 영상교육이 계기가 되어 아이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깨달아, 손 씻기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자드비가 마을에서도 보건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유치원에서 영상을 틀자,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 유치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느새 아이들과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로 유치원이 가득 차 있었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건위생 교육도 진행했고, 주민들이 모두 모인 김에 조혼 방지를 위한 교육영상도 추가로 시청했다.

이곳 둥게스와리에는 아직 조혼 풍습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은 16세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18세가 되면 같은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두 번째 결혼을 한 후 첫 아이를 임신한다. 그러다보니 이곳에서는 23세나 24세 정도 되는 젊은 여성들도 서너 명 아이들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혼으로 일찍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한다. 영상교육 중에 “우리는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딸들은 20살 이후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키자”하는 말에,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고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6살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를 더욱 꼭 안았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마을 보건위생 교육이었지만,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별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돌아켜보니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는 심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은연중에 당장의 성과위주로 선택하고 판단했던 삶의 방식을 반성하게 된다.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무언가 꼭 이래야 한다고 바라는 마음 없이, ‘다만 할 뿐’이다.



평화로운 만타부 마을



JTS는 꼬리뿔(구두쇠)

- 선생님들은 JTS를 구두쇠라고 부른다.

만타부 마을 학교가 개교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만타부 학교는 200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JTS 활동가들은 개교기념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곤 활동가가 대표로 춤을 춘 것 외에는 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랑가이(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재곤 활동가

만타부는 JTS 농업 훈련 센터에서 6~7km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만타부 마을과 JTS의 인연은 2006년 8월 25일, 만타부 학교의 준공식이 끝난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시 JTS의 현지 코디네이터였던 '도동'씨를 통해 지방정부(바랑가이)로부터 만타부 마을의 학교 건축 요청을 받아 검토를 해보니, 만타부 마을에서 근처 학교를 가려면 낭떠러지 같은 길을 2~3km 정도 걸어내려가야 했고, 큰길에서 학교까지 20분을 더 걸어야 했다. 초등학생들이 매일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라, 마을에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만타부 학교 준공식

주민들의 협력으로 단기간에 지은 만타부 학교

만타부 주민들은 학교를 짓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어 본 경험이 없었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시작 전에는 다음 달이라도 다 지어낼 것 같았다가도, 농사철이 되거나 사람들이 안 나와서, 아니면 치안문제가 발생해서 1년 이상 걸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완공을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든 학교가 지어졌다고 해도 정부의 협조와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없으면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만타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동과 단합이 JTS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단기간에 학교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닐까 한다.



마을 회의 진행중

이웃이 된 JTS

2008년부터는 다물록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에 따라 정기적인 문구류 지원을 빼고는 만타부 마을을 자주 방문을 할 수 없었다. 2010년 마을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 JTS 농업 훈련 센터를 짓고 나서야 만타부가 중점 개발 마을이 되면서 2~3주에 한 번 꼴로 꾸준히 방문하게 되었다. 행사가 있으면 매주 방문하기도 하다 보니, 보통은 마을을 방문하면 선생님들이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만타부 선생님들은 또 왔다는 식으로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옆 동네 이웃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인연이 오래되었고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의 지원은 오히려 마을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방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화는, 선생님이 JTS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JTS는 그렇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활동가에게 야채를 건네주는 주민들

JTS는 꼬리뿔(구두쇠)

지금까지 만타부 마을에 지원한 물품들을 살펴보면, 치약, 기본 상비약, 씨앗, 못, 쌀, 야채 몇 가지 정도가 전부인 것 같다. 억 단위의 예산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교하면 초라한 지원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금쪽같은 지원물품들이다.

치약은 위생사업의 일환이자 첫 걸음으로, 활동가가 방문할 때마다 직접 아이들에게 조금씩 짜주면서 함께 양치질을 하고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씨앗은 학교 주변의 텃밭 개발을 위해 지원했는데, JTS 현지 직원과 함께 방문해 등고선을 따라 밭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심는 법을 알려주었다. 주민들의 주식이 고구마나 카사바, 옥수수뿐이고 외지에서 사먹는 건 몇 가지 통조림 음식이 전부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했지만, 야채나 영양제를 직접 주기보다는 씨앗을 제공하고 텃밭 개발을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영양을 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씨앗 심는 교육을 진행중인 현지 활동가 미오씨

처음에 66명에 불과했던 만타부 학교의 학생이 지금은 156명이 되었다. 임시 교사로 1명뿐이었던 선생님도 현재는 정규교사 2명과 임시교사1명이 파견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반만 운영하던 학교가 유치원부터 4학년 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늘어 교실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학교 추가 건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바로 학교를 짓기 보다는 임시학교를 지어 학생 수 추이를 지켜보고 건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시학교의 건축 재료는 마을에 있는 대나무로 정하고, 건축 인력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했다.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쌀로 밥을 해먹으며 짓다보니 임시학교 건물이 금세 쑥쑥 올라갔다. 예산이 없다고 물러서는 지방정부를 주민들과 함께 설득해서 결국 지붕도 올랐다. 이 과정에서 JTS가 직접 지원한 것은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구하기 힘들었던 못 정도였다.



못을 지원하는 JTS 활동가



벽체가 완성된 만타부 임시학교 교실

최근에는 필리핀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도록 권장하는 날이자, 이걸 빌미로 마을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한 영양섭취의 날(Nutrition Day) 행사가 있었다. 도시의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먹지만, 만타부 마을에서는 늘 먹던 야채를 모으는 정도밖에 안되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도 행사에 참석해 음식을 나눠 먹는 상황이라 양도 부족했다.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기준으로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결과, JTS도 쌀과 야채 같은 간단한 식재료를 지원했다.

이러니 “JTS는 꼬리뿔(구두쇠)”이라고 선생님들이 농담을 할만도 하다. 만타부 마을은 가난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넘쳐난다. 식수용 물탱크도 하나 더 있어야 하고, 마을 방법을 돌 때 필요한 신발과 손전등도 있어야 하고, 물소도 더 필요하고, 양어장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을 하면

마을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JTS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우선 마을 주민과 선생님,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보자고 이야기한다.

변하기 시작하는 만타부

최근 만타부 학교에 '마롬'이라는 선생님이 부임해 왔다. 목공기술을 갖고 있어서 오자마자 교사숙소에 샤워실을 만들더니, 주민들과 담소를 나눌 배란다도 똑딱 만들어 냈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라 활동가가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이에 JTS 측에서는 오히려 'JTS의 지원 없는' 마을 개발을 우선 진행해보자고 역제안을 했다.



새로 부임한 마롬 선생님

JTS의 제안을 듣고 마롬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집마다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물길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강통을 팔아서 모은 돈을 마을개발 기금에 보태고, 몇 가구 단위로 밭을 일구고 군청에서 얻어온 씨앗을 심어 텃밭도 만들었다. 이제는 밤 10시부터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마을 순찰도 돌고 있다.

지금도 만타부 마을의 개발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 JTS 농업 훈련 센터에서는 리보나 군청이 준비한 농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만타부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JTS의 지원이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JTS는 그 옆에서 조금 거들 뿐이다.

마무리 공사 중인 학교 전경



학교 가는 길

- 개학과 새 사업, 또 다른 시작

우기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9월. 잠들어 있는 듯 한가하고 조용하던 마을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우기에 맞춘 3개월간의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르지 않아 진흙투성이인 길을 따라, 크게 자란 벼 사이로 논두렁길을 따라,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에 갑니다. 재잘재잘 한껏 들뜬 아이들의 애깃소리에 온 동네가 활기로 가득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배혜정 활동가

콕농부아 마을 주민들과 JTS가 함께 힘을 모아 짓고 있는 학교에서도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아직 페인트칠과 빗물받이 설치, 계단 공사, 화장실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새 학교에서 수업을 먼저 시작하자고 뜻을 모아 미장공사까지 마무리된 교실 두 칸에서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일에는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주말에 페인트칠 등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추수를 시작하는 11월이 되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마을 한 쪽에 있는 임시건물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수업을 진행하고,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은 이웃마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웃마을 학교로 가는 길도 아이들에게는 수월하지 않은 길입니다. 땅이 무르고 비가 조금이라도 내렸다면 진흙탕이 되어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을 30분 이상 걸어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저 멀리 군내까지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족히 30분은 걸리는 거리지요. 너른 눈을 가로질러 지름길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이 온통 젖어서 학교에 도착하지만, 씻을 수 있는 급수시설이 없어 젖은 채로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웃마을 학교로 가는 길

이웃마을 학교에 답사를 다녀오는 길에 자전거 한 대를 같이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솜씨 좋게 울퉁불퉁한 길을 잘 달리다가, 길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나오니 동생이 얼른 뒷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형은 먼저 자전거를 몰고 가 동생을 기다리고, 동생은 자기 가방과 형의 가방을 짊어 메고 걸어가서 다시 뒷자리에 올라타입니다. 사이좋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학교가 완공되고 운영이 안정되

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춘 학교를 보

고 있노라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공정 각 단계마다 활동가들의 수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었고, 기술자들의 굵은 땀방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에, 벽돌 한 장, 기둥 하나, 문짝 하나에도 정이 갑니다.



사이좋은 형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을에 와서 문제는 없는지, 더 필요한 자재가 있는지, 다음 공정은 언제 진행할 건지 대화를 나눕니다. 애기거리가 정 없으면 “피곤하시죠?”, “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더라도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주민들을 칭할 때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장님 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으레 설거지나 뒷정리도 돕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장님 부인인 란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활동가 한 명이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바시 세레모니’를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인데, ‘화이푸켄’이라는 실 팔찌를 채워주면서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 등을 빌어주는 의식입니다. 오후가 되니 마을 할머니 두어 분이 오셔서 의식에 사용하는 바나나 잎 화환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들도 오셔서 모두가 조금씩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 댁을 가득 채울 만큼 모였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매주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잘 돌아가라고 여비까지 조금씩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따뜻

한 눈빛에서, 어깨를 다독이는 손길에서, 마주잡은 두 손에서 마을 분들의 깊은 애정이 느껴져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활동가가 돌아가고 나서도 마을에 갈 때마다 잘 지내는지, 전화는 왔었는지 물어주시고,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얘기를 꺼내시곤 합니다.



바시세레모니

사람들이 사업 참여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가 되니,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곳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JTS는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처음 도착할 때부터 수없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라오스는 여전히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으로 LDCs(최빈국)에 속하고, 일 평균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30.3%에 달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구호가 필요할 정도로 굶는다거나 상황이 열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메콩강을 따라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인구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부 참파삭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서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마을마다 초등학교는 하나씩 있는 편입니다.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학교나 보건소를 똑딱 지어주고, 외국에서 들어온 좋은 물건들을 보급해 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곳의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발전해나가도록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머릿속 고민들은 어느새 묻히고 맙니다. 데이트 하러 가느라 예쁘게 차려 입은 아가씨가 옷에 온갖 구멍물이며 흠탕물이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시내에 나갈 수 있게 길을 잘 닦아주고 싶고, 이장님 손자 '맹'이 가끔은 마음껏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통비 걱정 없이 팍세(Pakxe) 시내로 일을 보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놀다가 피부가 까지고 베이고서도 씻지도 않고 피를 스욱 닦고 마는 아이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학교에 구급약품상자 하나 정도는 놔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소박한 욕심이 생깁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활발한 개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TS 라오스 지부에서는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시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곡농부아 마을이 있는 수쿠마 군 뿐 아니라 참파삭 주에 있는 다른 군들, 그리고 참파삭 주와 이어져 있는 아따쁘 주까지 영역을 넓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JTS를 알게 되었고, 어느 마을에 학교가 필요하다, 어느 마을에 와줄 수 없느냐 등등 소개를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라오스 지부에서는 '교육'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건축 지원이 필요한 마을들과, 우물이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인연들이 기대됩니다. 이 곳 라오스에서 JTS 활동가들이 이 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거제도애광원 봉사를 다녀와서

함께하고 글쓴이 마산지부 - 이성우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4번 국도 끝자락에서 장승포항으로 내려가기 전, 해금강 방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장애인 재활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한 총 6개 시설에서 2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지역 지부의 활동가들은 돌아가면서 거제도애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광원 친구들을 처음 만난 건 올 4월 초, 이곳 남녘에서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꽃의 향연과 축제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했던 곳은 지적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수익사업 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밝게 인사하는 생활인들과 함께 간단한 상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증 장애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평소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곤 했는데, 이들을 보니 그런 말이 썩 들어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광원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8월 22일, 한여름의 늦더위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산지부 분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어서 그런지 처음 방문 때 놓쳤던 것들이 들리고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애광원 식구들을 '장애인'으로 부르지 말고, '생활인'으로 통칭하여 불러달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생활인들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열 살 정도로 보였던 한 생활인은 발육부진으로 인해 그렇게 보일 뿐, 실은 서른 살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거제도애광원을 떠나면서, 단지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에도 새삼 감사하게 됐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봉사활동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순간순간 마다 작은 감동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낙숫물로 바위도 뚫을 남자

- 서울 노원 지역 활동가 손연우님

인터뷰 정리 서초지부 - 권영숙

지난 10월 14일 저녁, 노원지역 JTS 거리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손연우님을 만났습니다. 보름간의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탓인지 얼굴이 많이 핏색 하셨습니다.

손연우님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자이시고,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인과 초등학교 2학년 된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글 정리는 딱딱하게 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형식을 벗어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딪혔었어요. JTS의 거리모금도 돈 안 받고 하는 봉사다 보니,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국토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Q JTS 세계시민교육도 받으셨고, 거리모금도 일 년 동안 매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감동스러웠을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네, 많았죠. 한 번은 노원 문화의 거리에 JTS 캠페인 부스와 엠프를 설치하고 있는데, 모금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십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지갑을 꺼내 지갑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모금함에 넣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의 거동을 자세히 보니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나 감사 보다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돌려 달라고 따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그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후원자를 우려하고 연민의 감정으로만 바라본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Q 보름동안 홀로 국토순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직장인들이 한 달간 휴가를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토순례를 하시게 된 배경과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국토순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며 삼국시대의 불교 성지를 찾아 떠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토순례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1시간동안 35km를 걸으면서 오히려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시작은 통일을 염원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강했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

Q 거리모금 캠페인을 할 때 주로 혼자서 문화공연을 하시죠? 손연우님이 지난번 인사동 거리모금 캠페인 때 노래 부르시는 걸 본 적 있어요. 노래 부르면 더 잘 되나요?

A 거리모금 캠페인에 처음부터 기타를 들고 나가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기타 동호회 동생들과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모르면 공감한다고 겁 없는 도전을 했던 거죠.(웃음)

Q 저는 거리모금을 나갈 때마다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금함을 내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리모금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A 저도 낯선 사람 앞에 다가가서 모금함을 내밀기가 쉽

지는 않았어요. 거리모금을 20회 이상 하고 나서야 면역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제 자신도 변했구요. 처음에는 국제 구호단체라는 것으로 저를 포장해서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최대한 거리 모금하는 목적을 전달하려는 생각에 기계처럼 말을 빨리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의 사람들이 아들로 보이고, 부모로 보이고,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린거죠.

인터뷰 하면서 손연우님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봉사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다는 손연우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노원 지역의 거리모금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느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큼니다. 그 한사람의 꾸준함이 노원지역의 거리캠페인이 매주 진행될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실천, 참 단비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손연우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 두북 정토마을 자원봉사 이야기

함께하고 글쓴이 대구경북지부 - 최진연

한 달에 두 번, JTS 대구지부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두북 정토마을로 봉사활동을 간다. 두북 정토마을은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JTS가 폐교 건물을 임대하고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곳에 방문하면 JTS의 시설을 관리하고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경숙 활동가가 두 팔을 벌려 고향집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



영남지역 각 지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은 전경숙 활동가의 능숙한 지휘 아래 근처 마을을 찾아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의 목욕과 집안 청소 같은 일을 척척 해낸다. 어르신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해 대구지부 봉사자들이 만들어 온 반찬도 간식과 함께 준비해 드리고, JTS의 구호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정리도 돕는다.

잠시 짬을 내어 배추와 고추를 기르는 작은 텃밭에 들러 밭을 고르고 잡초도 뽑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개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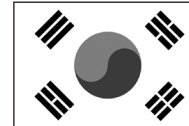
일상에서 벗어나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려 간다고 할 만큼,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은 삶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사례발표 중인 송지홍 활동가

1. 필리핀 재난대응 워크숍 참석

지난 9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주최로 필리핀 현지 재난대응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는 현지의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NGO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필리핀의 재난대응 체계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워크숍에는 JTS의 송지홍, 오성근 활동가가 참석하여 마라뵈 조기복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JTS의 사례는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맞춤형 재난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김기진 JTS 공동대표

2. 화이트밴드 캠페인 참석

지난 10월 14일, 올해로 열 번째 열리는 화이트 밴드 캠페인 현장에서 JTS의 김기진 공동대표가 캠페인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화이트 밴드 캠페인은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기념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올해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주최로 대교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강의

3. JTS 세계시민 교육 개강

JTS 세계시민 교육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영남, 호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JTS 세계시민 교육은 지구촌의 현안인 기아, 질병, 문맹 및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이나 국가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4. 양평초등학교 돼지 저금통 분양 및 교육

양평초등학교 김은경 선생님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2일 양평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JTS의 활동과 간단한 역사, 국제 구호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분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내가 아닌 남을 돕고자 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소중한 것 느껴졌습니다.



India 인도



아자드비가 정부학교에 물품 전달

1. 정부학교 학용품 지원

수자타아카데미는 본교를 중심으로 15개 마을에 유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천민마을인 아자드비가는 학교 진학률도 낮고 학업 수준도 낮기 때문에, 마을 어린이의 진학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학교 학생들에게도 공책과 펜을 지원했습니다. 학용품을 지원하면서 정부학교 운영의 어려움도 듣고, JTS가 정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정부학교와 수자타아카데미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손씻기 교육 영상을 보는 아이들

2. 유치원 손씻기 교육 진행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활동하셨던 이유진님께서 힌디어로 된 보건위생 교육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검차 방문한 유치원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상영하였습니다. 작은 화면이지만 영상을 본다고 하니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손은 언제, 무엇으로 씻어야 하나요?" 물으니,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요", "놀이 나체요", "자기 전에요", "비누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마라뿔 학교 준공식

8월 20일에는 필리핀 사말 섬 마라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마라뿔 학교재건 사업이 집행되어, 총 15개 학교 80칸의 수리와 신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는 15개 학교 전체의 준공식을 진행할 수 없어서, 마라뿔 초등학교, 마라뿔 고등학교, 오스메니아 초등학교, 오스메니아 고등학교, 갈루와안 초등학교, 레가스피 초등학교에서만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이 진행되는 학교마다 태풍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라뿔 센트럴 초교 준공식

2. 만타부 개교기념일 행사 참석

지난 10월 1일, 만타부 학교에서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학교가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는 마을 전통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만타부 마을 중 6개 푸록(Purok, 한국의 리보다 작은 '통' 단위) 대표들도 참석하여 개교기념일 축사를 했습니다. 학년별로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바랑가이의 지원을 받아 밥을 짓고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을 모아 간소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개교기념일 식순 중 국가제창



Laos 라오스



교실 내부

1. 콕농부아 학교 수업 개시

콕농부아 학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9월 새 학기에 맞춰 수업을 시작하기를 위하여, 아직 페인트칠과 마무리 작업은 남았지만 교실 2칸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내부 페인트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학교이지만, 오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 잡초도 뽑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학생들은 마냥 신이 난 모습입니다.



우똌싸이마을 이장님 인터뷰

2. 아따쁘주 지역 답사

라오스 지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참파삭주를 비롯하여 이웃하고 있는 아따쁘주, 세콩 주까지 범위를 넓혀 마을 단위의 급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따쁘 주는 80%가 산간지역이고 소수민족 비율이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개발이 늦은 편이라,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아따쁘 주 농촌지역개발부서를 방문하여 통계자료를 얻고, 우똌싸이 마을의 급수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향후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산간지역 마을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3. 타단체 활동가 라오스지부 방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활동가 3명이 JTS 라오스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군교육청 회의를 참관하고, 현재 사업진행중인 콕농부아 마을을 방문하여 학교건축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JTS와 지부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지원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며, 수도권과 지방 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박종화, 권도영,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김명숙, 신예슬
필리핀	민다나오 : 김희자, 이재곤, 박영일 / 마라뿔 : 송지홍*, 임희성,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북한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길.
- 배경아 -

손진우, 손진준 생일 축하하며 배고픈 어린이와 함께
- 손봉모 -

김서연 7살 생일 기념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합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길 기원합니다.
- 김서연 -

어머니조철선님께서 남동생의 사고보상금으로 굶주리는 어린이를 돕기위해 후원
- 조철선 -

대학새내기 딸의 동북아역사대장정 답사를 감사드리며...
- 이인정 -

음력 7월5일 부모님 기일을 맞이하여 영가의 천도 발원하오니 온갖 굴레와 고통을 벗어나 해탈하여지이다.
- 김연수 -

해안이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 김영경 -

아들 태영이의 7세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을 회향합니다.
- 이수연 -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진실하게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먹을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한모금의 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심은아 -

군대간 첫 아들이 이모가 준 용돈을 후원함.
- 강선경 -

아버님 윤병용영가 극락왕생발원
- 윤철상 -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특히나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승 -

택양전씨 할머니의 기일을 기리며 보시합니다.
- 최규상 -

손녀 영은이 생일축하
- 김영은 -

나와 나 이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태 -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 김미순 -

이 돈이 조금이나마 제 3세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형섭 -

현장에서 땀 흘리며 힘써 주시는 봉사자분들 수고 많으시구요. 작지만 저의 보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기명 -

특별후원금 (2014. 08. 01. ~ 2014. 09. 30.)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2014년 8월 복한결연																																																																																																																																																																																																																																																																																																																																																											
김범석	20,000	김상윤	20,000	김영희	30,000	김영호	3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정미	100,000	김재환	151,850	김태운	100,000	나경주	100,000	나희원	100,000	민정희	30,000	박기홍	100,000	박산철	50,000	박완임	10,000	박자현	20,000	송미경	1,000,000	수미정	10,000	신유빈	10,000	신재영	10,000	웹브랜드	100,000	윤정아	300,000	이광준	30,000	이규경	20,000	이미란	20,000	이서영	13,120	이주은	10,000	이주형	10,000	장현주	100,000	정민호	30,000	정연현	10,000	정진희	50,000	정현옥	30,000	조대경	50,000	하지민	10,000	허수호	10,000	홍석운	10,000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김규리	4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진용	30,000	김태운	100,000	나희원	100,000	김민희	20,000	김동현	80,000	김정수	50,000	김정숙	3,000,000	김정연	100,000	김정희	20,000	김태운	100,000	김한수계제	200,000	김현순	38,790	김현지	1,000,000	김혜경	100,000	김혜란	21,840	김혜례	60,000	김효은	100,000	나경자	75,000	나종용	100,000	나희원	100,000	남예준	50,000	단경스님	100,000	동욱스님	100,000	류수진	50,000	명안스님	100,000	묘주스님	100,000	민옥희	230,000	민정희	10,000	박경숙	100,000	박소하	28,000	박옥경	100,000	박주하	20,000	박중길7314	33,840	박화숙	30,000	박효정	100,000	배정황	5,000	백건구	30,000	백정숙	100,000	법무사박정순	230,000	보시	200,000	분당 아나바다 수익금	502,100	서미옥	10,000	서민아	200,000	서효재	200,000	성진스님	100,000	손동선	200,000	손영수	50,000	송상욱	87,270	송평수	38,990	송현주	50,000	신동현	25,000	신명훈3949	27,500	신영자	50,000	신재은	10,000	신한58741489	1,000	심민경	100,000	심유현	100,000	양명숙	100,000	양자상	500,000	엄경희	30,290	연호순	100,000	오영욱	40,000	오장욱	100,000	우남준	50,000	유해인	100,000	윤정환	10,000	윤철상	250,000	이난진	50,000	이다경	500,000	이명숙	500,000	이미향	10,000	이범인	137,510	이소영	3,000,000	이연재	35,000	이영주	10,000	이오숙	50,000	이원형	10,000	이윤희	55,000	이은혜	50,000	이은노	28,710	이정애	200,000	이주연	50,000	아주영	50,000	아주영	50,000	이택건.이정건	50,000	임기자	30,000	임남숙	1,000,000	임선희	500,000	임양호	350,000	임학진	20,000	장경숙	30,000	장세영	20,000	장수진	100,000	장순석	10,000	정영애	100,000	장준호	30,000	전혜빈	183,670	정경아	30,000	정교필	100,000	정남스님	100,000	정미란	2,000,000	정민스님	100,000	정본스님	100,000	정선옥	33,350	정소연	50,000	정숙경	50,000	정환스님	100,000	조대영	85,000	조재희	100,000	조창균	30,000	조철신	10,000,000	조목스님	100,000	주소피아	50,000	죽문죽설감사	10,000	청강스님	100,000	최명욱	100,000	최복림	100,000	최선도	100,000	최수연	10,000	최재연	30,000	최재익	30,000	최희범	79,400	태희스님	100,000	통영정양순	33,000	평촌장태훈	100,000	하든규	50,000	하지남	500,000	하지민	10,000	한지민씨뎀	1,000,000	함미정	30,000	허세황	50,000	허영선	100,000	현승스님	100,000	홍석운	10,000	홍어진	100,000	황영순	5,000	황영순	5,000	황정숙	20,000	고규영	50,000

JTS 전체사업

0102994123	26,170
강경민	100,000
강민준	100,000
강선경	50,000
강수정	30,000
강신호	100,000
강인숙	10,000
강희란	10,000
거제양평선	3,000,000
고광남	100,000
고려인생태권도	150,000
공경향	100,000
권호임	5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란	60,000
김경희	27,020
김광선	50,000
김광현	100,000
김금주(분당)	5,000
김미영	100,000
김민경	20,000
김봉덕	200,000
김봉진	50,000
김성순	200,000
김성신	100,000
김성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연수	50,000
김영은	100,000
김영임	13,000
김용규	50,000
김윤하	50,000
김유진	20,000
김유천	100,000
김윤홍	120,000

필리핀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김규리	4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진용	30,000
김태운	100,000
나희원	10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고광희	35,000
고춘복	100,000

2014년 9월 복한결연

고규영	5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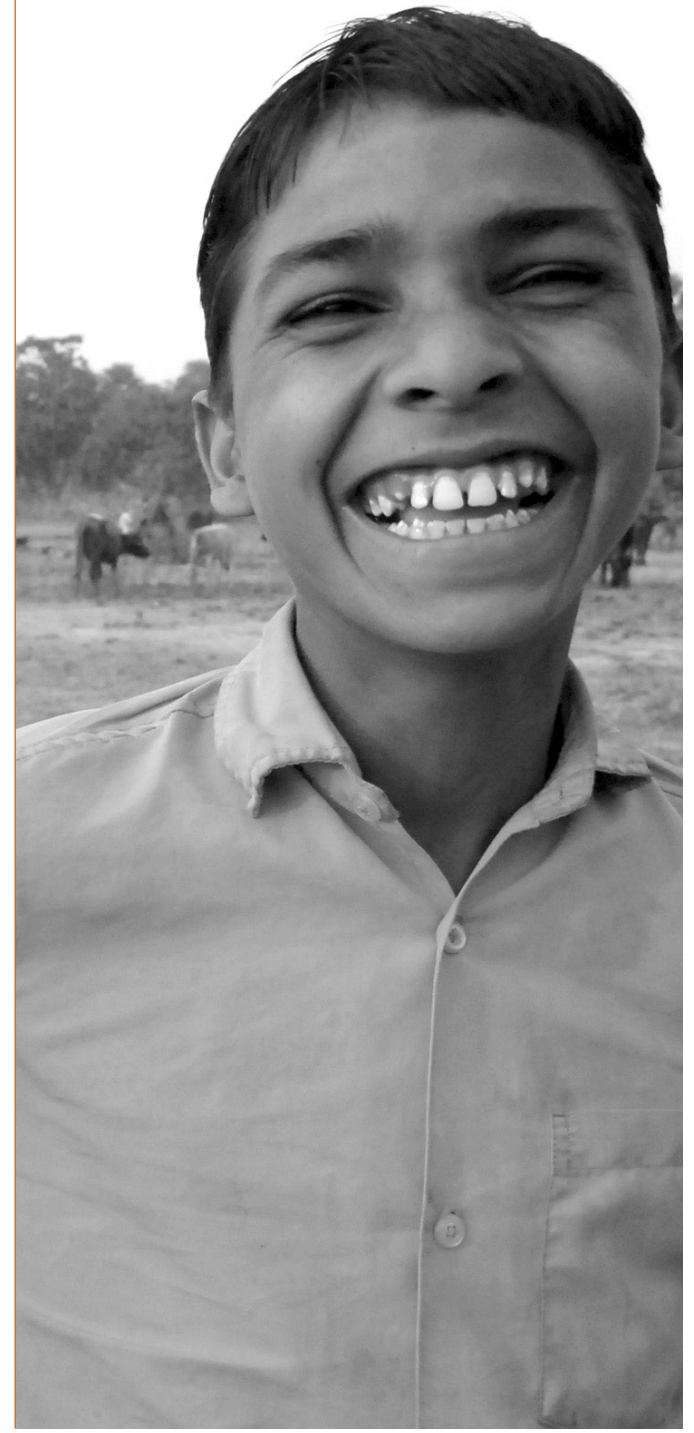
해외JTS 후원금

(2014. 09. 01. ~ 2014. 09. 30.)

고재용 30,000	청년동북아9조 24,000	김선형 10,000	김운하 10,000	송정숙 150,000	이준규 1,000,000
김경미 30,000	최순희 50,000	김승희 30,000	김원태 100,000	수미정 10,000	이창주 330,000
김미순 50,000	하지민 10,000	김태영 20,000	김유진 200,000	신동현 10,000	이향선 10,000
김미자 50,000	허대영 10,000	나경주 50,000	김은정 5,000	신영근 50,000	이현정 30,000
김상윤 20,000		남경현 50,000	김은주 50,000	신용남 500,000	이혜영 37,520
김승희 50,000	인도 및 제3세계	무기명 20,000	김정미 200,000	신용섭 200,000	임기자 100,000
김아사 30,000		무기명 10,000	김정수 50,000	신재영 10,000	임기자 200,000
김영경 50,000	강영예 50,000	박별님 10,000	김자연 200,000	신재은 10,000	임민아 3,000
김운하 50,000	고재용 20,000	박형섭 50,000	김자연 10,000	신학봉장산덕산총원외	임은민 30,000
김정미 200,000	권경아 250,000	신재영 10,000	김진철 5,000	50,000	장성우 10,000
김혜경 29,820	김미정 30,000	심은아 20,000	김태영 10,000	신혜경 500,000	장세영 20,000
깨장 1207차 240,000	김민우 10,000	이미란 10,000	김태형 300,000	심은아 10,000	장순석 25,000
나경원 50,000	김민철 10,000	이인정 50,000	김현지 250,000	안양 신유정 100,000	장영인 50,000
남경현 50,000	김선형 10,000	임성희 10,000	김홍필 200,000	안용주 5,000	장준태 100,000
목안봉(김홍임) 50,000	김승희 30,000	임은민 10,000	김효운 100,000	양윤석 100,000	장진희 50,000
무기명 20,000	김운하 50,000	정백기 100,000	김희자 184,500	양재연 100,000	전영필 30,000
무기명 20,000	김태영 20,000	정해승 10,000	나경원 50,000	염운주 10,000,000	전주이스턴 64,550
문경민 48,000	남경현 50,000	하지민 5,000	나경주 50,000	여용렬 990,000	전해진 60,000
문경숙 20,000	무기명 20,000		남경현 50,000	오미경 50,000	정경아 30,000
문형순 50,000	무기명 10,000	JTS 전체사업	노원중2-2반 130,070	오영옥 40,000	정백기 100,000
박기욱 100,000	문형순 50,000		돌랑이방울아간강하차	우남준 50,000	정스런 100,000
박동민 30,000	박별님 10,000	강마숙 100,000	100,000	우연수 10,000	정오숙 50,000
박별님 20,000	소진호 30,000	강민숙 160,000	무기명 10,000	우원석 20,000,000	정은영이상근 1,000
박완임 10,000	신재영 10,000	강인숙 10,000	박경자 6,000,000	우주성 100,000	정은영이승진 600
박인범 100,000	심은아 30,000	고귀영 50,000	박미혜 100,000	우지운 200,000	장재범 10,000
박희달 1,000,000	영가황중택조 50,000	고효숙 100,000	박별님 10,000	우희수 10,000	정해승 10,000
서호재 50,000	이광준 20000	구다인 100,000	박성래 100,000	유소영 10,000	조선연 10,000
신재영 20,000	이규경 10,000	권영세 50,000	박옥경 100,000	유승자 300,000	조정순영가 50,000
심은아 50,000	이미란 20,000	금삼승민승필 30,000	박완임 10,000	유애경 60,000	좋은벗들 294,400
안차애 100,000	이서영 95,640	기장희현숙7413	박은옥 1,000	유영만 108,000	차진욱 10,000
원화영 100,000	이인정 50,000	100,000	박정숙 300,000	윤영희 100,000	천승진해운대
윤난영 300,000	이진일 5,000	김경택 1,000,000	박종천 50,000	윤인옥 200,000	10,000,000
윤미선 100,000	임성희 10,000	김경희 5,000	박종현 200,000	이규숙 20,000	최미현 30,000
윤영주 30,000	임은민 30,000	김나연 20,000	박창 10,000	이기열 500,000	최수연 10,000
이미란 20,000	정기윤 30,000	김도엽 100,000	박태근 1,000,000	이길림 20,000	최찬열 300,000
이서영 110,000	정백기 200,000	김동우 20,000	박태화 500,000	아나연 노연주 권상조	하지민 10,000
이수연 100,000	정윤점 300,000	김미영 100,000	방영옥 100,000	30,000	함미정 30,000
이인정 50,000	정해승 10,000	김봉주 500,000	백서이 50,000	이대일 19,570	해운대김선 20,000
이진일 10,000	조재희 50,000	김성희 30,000	산들바람공부방 23,470	이미경 1,000,000	하영선 100,000
이현정 10,000	하지민 5,000	김소영 30,000	서미옥 10,000	이미란 20,000	하원진 90,000
일계124차 2,764,630	해륜스님 500,000	김순실차윤실 220,000	서세은 50,000	이미향 10,000	홍영숙 100,000
임은민 30,000	황두현 120,000	김승희 30,000	서호재 1200,000	이법민 200,560	황선덕 100,000
정영순 30,000		김시은 10,000	선민인터킷고JTS	아석매 50,000	황선혜 200,000
정백기 100,000	필 리 핀	김시형 50,000	200,000	이승은 10,000	황영순 15,000
정연현 20,000		김영미 500,000	설수정 100,000	이은규 100,000	황정현 5,000
정해승 20,000	강영예 50,000	김영선 200,000	손봉모 200,000	아인정 50,000	후원금 100,000
제순돌 20,000	권경아 250,000	김영숙 500,000	손영수 1,000,000	이달권 300,000	
조재희 50,000	김민우 10,000	김영림 1,000	손영훈 100,000	이주영 50,000	

미국 J T S 2014년 9월

김미경 \$150.00	\$1,500.00
김성호 \$50.00	YOUNG IL PARK/ YONGOK PARK
김소현&이동근	\$100.00
\$110.00	
김순미 \$50.00	
김순미 \$50.00	
김윤진 \$70.00	
마이클 양 \$62.00	
박경배 \$40.00	
박경배 \$80.00	
박현수 \$50.00	
시에틀정도회원	
\$100.00	
유승목 \$20.00	
윤영수 \$100.00	
임선희 \$50.00	
최경숙 \$30.00	
최명숙 \$1,000.00	
최영태 \$100.00	
최은선 \$60.00	
A&J Seattle \$200.00	
EUJNSUN CHAE	\$100.00
Han choongho	\$30.00
JUNG IE JUN	\$3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15.00
L.A. JUNGTO	\$8,429.57
Linda	\$50.00
MANSUNG CHOI	\$20.00
MICROSOFT	
MATCHING GIFTS	
PROGRAM	\$300.00
No Suk Yi &Woo	
Bong Yi	\$30.00
PATTY O KIM	\$50.00
Seungyong Park	\$30.00
TRIVIUM,INC	\$100.00
YONG SULL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